

축구

8

2018년 9월 19일 수요일

스포츠동아



아우크스부르크 지동원(오른쪽)이 15일(한국시간) 마인츠전에서 골 세리머니를 펼치다가 왼쪽 무릎을 다친 뒤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사진출처 | 아우크스부르크 홈페이지

골 세리머니가 뭐길래... 지동원 수주 결장 불가피

무릎 내측인대 손상...공백 장기화 전망

골을 넣은 기쁨이 너무 컸던 것일까. 골 세리머니를 펼치다 부상을 당한 지동원(27·아우크스부르크)의 결장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지동원의 소속팀 아우크스부르크는 18일(한국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지동원은 왼쪽 무릎 내측인대 부상이 확인됐고 향후 몇 주간 결장이 불가피하다'고 소식을 전했다.

생각지도 못한 부상이었다. 지동원은 지난 15일 독일 마인츠의 오픈 아레나에서 열린 2018~2019 독일 분데스리가 3라운드 마인츠와의 원정경기에서 교체 출전해 양 팀이 0-0으로 팽팽하게 맞선 후반 37분 골을 터뜨렸다. 이 골은 2016~2017시즌 도르트문트와의 16라운드에서 나온 골 이후 분데스리가 1부리그에서 오랜만에 나온 지동원의 득점이었다. 선제골을 폭발한 지동원은 높게 점프해 환호를 하면서 골 세리머니를 펼쳤는데, 착지하는 과정에서 무릎이 꺾여 곧바로 교체됐고, 팀은 1-2로 역전패했다.

아우크스부르크의 스포츠 디렉터인 스테판 로이터는 "지동원과 팀에게 매우 화가 나는 부상이다. 다만 이번 골은 지동원에게 힘이 될 것이다. 가능한 빨리 재활을 해 골 감각을 가지고 돌아오는 데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부상은 한국축구대표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축구대표팀은 다음달 12일(우루과이·서울)과 16일(파나마·천안) A매치가 예정되어 있다. 3주 남짓한 기간이 남아 지동원의 부상 상태를 고려하면 대표팀 합류가 어려워 보인다. 지동원은 "골을 넣었는데 부상을 당해 아쉽다. 복귀를 위해 열심히 재활 운동을 하겠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오늘 또 챔스리그 8강 2차전...4강행 주인공은?



전북 현대와 수원 삼성이 19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2018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ACL) 준결승 티켓을 놓고 마지막 담판을 벌인다. 8강 1차전에서 3-0 대승을 거둔 수원이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지만 K리그의 강력한 우승 후보인 전북의 힘 역시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양 팀 맞대결에서 전북 김민재(오른쪽)와 수원 조원희가 볼을 다루고 있다. 스포츠동아DB

기선 제압 수원이나 닥공 본능 전북이나

수원, 8강 1차전 전북에 3-0 압승 '김민재 출전' 전북, 대역전극 노력 전북, 4골차 이상 이겨야 4강진출

올 시즌 개막을 앞두고 K리그1 전복 현대 최강희 감독은 "아시아 최강의 영광을 맛보고 싶다"는 포부를 전했다. 2018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를 향한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실제로 전북은 2006~2016년에 이은 세 번째 영광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필요할 때 자금을 아끼지 않는 투자의 기초를 지켜 훌륭한 선수단을 구성했다.

이미 결실을 맺고 있다. K리그1 정상에 코앞이다. 스피릿 라운드(팀당 5경기)를 포함해 10경기 남긴 가운데 2위 경남FC와 승점차가 16점이다. 2009~2011·2014·2015·2017년에 이은 통산 6번째 우승이 임박했다.

그러나 전북은 만족할 수 없다. 상당한 금전적인 보상과 아시아 최강 클럽의 명예, 12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개최될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 출전 등 ACL 우승 팀이 얻을 혜택은 다양하다.

물론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공교롭게도 K리그1 수원 삼성에게 브레이크가 걸렸다. 전북은 지난달 29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끝난 대회 8강 원정 1차전에서 수원에 0-3으로 완패했다. 두 골을 몰아친 데얀에 당했다. 유독 전북에 힘을 쓰지 못하던 수원은 가장 중요한 순간, 적지에서 강력한 카운터펀

치를 날렸다. 수원은 한 시절을 품미한 팀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명성을 잃었다. 모기업 차원의 '허리띠 졸라매기' 여파로 가파른 하락곡선을 그렸다. 리그 우승은 2008년이 마지막. 이후 두 차례(2010·2016) FA컵을 차지했으나 만족할 수 없는 행보다. 2위가 한계였다. 올해도 우승은 불가능해졌다. 수원에겐 어느덧 전북은 넘지 못할 벽이 됐다.

이제 수원은 지긋지긋한 '전복 징크스'를 탈출하려 한다. 2002~2003시즌 출범한 ACL에서 수원은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다. 2011년 준결승 진출이 가장 높이 오른 위치다. 2001년과 2002년, 아시아 클럽 챔피언십(ACL 전신)을 연속 제패했으나 ACL과는 아직 인연을 맺지 못했다. 전북을 7년 만의 ACL 4강행 제물로 삼는다면 금상첨화다.

전북과 수원은 19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대회 8강 2차전을 갖는다. 시나리오는 지극히 간단하다. 수원은 무승부 이상, 2골차 내로 패해도 4강에 오른다. 반면 전북은 무조건 3골차 이상을 만들어야 한다. 3-0이 될 때만 연장전으로 돌입한다.

공은 등갈다. 승부의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수원이 4강 고지의 8부 능선을 넘어섰으나 9월 3경기에서 2무1패를 했다. 2골·4실점하며 부진했다. 전북은 경남(3-0)~제주 유나이티드(4-0)를 내리 격파하는 동안 7득점·무실점했다. 수원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유다. 전북이 기적을 바라는 배경도 충분하다.

남정희 기자 yoshike3@donga.com

프로축구연맹, 경찰청에 한시적 선수선발 요청

경찰청 일방결정 통보에 유감 표시 "연맹-아산-경찰대학 협약에 위배"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선수추천을 하지 않기로 한 경찰청측에 유감을 표시하며 1회에 한해 대규모로 선수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프로연맹 관계자는 18일 "일방적으로 병력 충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찰청측의 결정에 유감을 표시한다. K리그2 아산 무궁화프로축구단과 관련해 경찰청측에 선수를 다시 뽑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루트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연맹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공식 문서를 경찰청으로 보냈다.

이 관계자는 "연맹-아산-경찰대학 3자간에 체결한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 운영협약을 보면 '정체변경(의무경찰 인원감축 등) 및 외부요인으로 인해 본 협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는 상황 발생 시 사전에 3자 회의를 통해 설명하도록 하며'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사전 얘기가 전혀 없었다"며 "8월 30일 의무경찰 홈페이지 내 모집공고를 보면 축구선수 선발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삭제됐다"고 절차상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아산무궁화의 경우 구단 운영은 아산시가 하지만 선수선발 등 선수단은 경찰대학이 직접 담당하고 있다.

연맹에 따르면 정부 정책인 의무경찰인원 단계적 축소에 대비해 7월 연맹-아산-경찰대학 관계자가 만나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연맹은 2019년까지 현 체제로 운영하되 2020년부터 아산이 제대로 된 프



한국프로축구연맹이 18일 간담회를 열고 최근 선수 추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찰청측에 유감을 표시했다. 김진형 홍보팀장(오른쪽)이 관련 사안에 대해 취재자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로구단을 만들어 리그에 참가하는 것을 권고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산과 경찰대학 관계자는 2022년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니 지금 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자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이 회의가 열리고 불과 2개월 만에 경찰청이 의무경찰 충원에서 축구선수를 제외하기로 했다는 공문이 접수된 것이다.

연맹 관계자는 "의무경찰 폐지는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순응해야 한다. 다만, 축구계가 경찰청측이 없어지는 것에 대비할 시간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올해 1회에 한해 선수를 추가 선발해 2019년까지 운영하고, 축구계가 자구책 마련할 시간을 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아산 무궁화는 올해 선수를 수급하지 않으면 내년 2월 이후에는 14명만 남는다. 그렇게 되면 2019년은 정상적인 팀 운영이 불가능하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포항에 등지 뜬 장결희, 다시 태극마크 꿈꾼다

"월드컵·AG 보면서 대표팀 그림떠라 몸 잘 만들어 멋진모습 보여드리겠다"

"태극마크를 향한 그리움이 더욱 커지더라고요."

올 시즌 막바지 레이스가 한창인 K리그에 나 홀로 담금질에 한창인 선수가 있다. 이달 포항 스틸러스에 새 등지를 뜬 장결희(20)다.

포항제철중에 담금고 있던 2011년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명문 FC바르셀로나 13세 이하(U-13) 유스팀으로 건너가 7년 가까이 해외생활을 거친 장결희는 이달 포항과 입단 계약을 맺고 고국 무대로 돌아왔다. 구단 소속인 송라 클럽하우스에 머물며 몸 만들기에 바쁜 장결희의 목소리는 밝았다. "시간이 많이 흐르지는 않았지만 벌써 적응이 끝났다. 전부터 알고 지내던 동료들이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 오전과 오후 운동을 소화하면 하루가 금방 지나간다"면서 멋지게 웃었다.

장결희에게 포항은 제 2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다. 연고지 출신은 아니지만 유스팀인 포항제철중에 다니면서 인연을 쌓았다. 이진현(21)과 권기표(21), 이상기(22) 등 포항에 먼저 몸을 담고 있던 선배들과도 함께 훈련을 한 추억이 있다. 국내 복귀를 결심한 뒤 포항을 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중학생 시절 스페인으로 떠나 그리스를 거쳐 20대 청년으로 성장한 장결희는 바르셀로나에서의 추억을 먼저 떠올렸다. '바르셀로나 3총사'를 이뤘던 이승우(20·베로나), 백승호(21·페랄라다)와 함께한 지난 5년을 묻자 "한국인은 우리 셋뿐이었으



포항 장결희

니 서로 의지가 많이 됐다. 스페인 생활 막바지에는 개인생활을 하면서 소속에 같이 머물지는 못했지만 훈련장에서는 서로 많은 도움을 줬다. 물론 그 안에서 경쟁은 존재했다"고 회상했다.

올해 정식 선수등록이 불가능한 탓에 내년부터 K리그에서 뛰 수 있는 장결희의 숨은 목표는 국가대표 발탁이다. U-17과 U-20 연령별 대표팀을 거쳤던 그는 지난해 5월 국내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최종엔트리에 들지 못했다. 이어 포레들이 대거 출전한 올해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아게임에서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내가 많이 부족했던 탓에 마지막 부름을 받지 못했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다. 러시아월드컵과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아게임을 지켜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다. 특히 태극마크에 대한 그리움이 커졌다. 내년 K리그 데뷔를 통해 내 실력을 다시 뽐내고 싶다. 동시에 그간 달지 못했던 태극마크도 품고 싶다."

자신의 장점을 빠른 스피드와 감각적인 드리블로 꼽은 측면 플레이어 장결희는 "남들보다 체구가 작은 편(신장 172cm·체중 62kg)인 만큼 앞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내년 시즌 개막까지 열심히 몸을 만들어 팬들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